

경제개발전략에 기초한 비교우위의 동학이론

나 호 수 *

A Dynamic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Ho - Soo Nah

Abstract

By the late 1950s and 1960s, some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aiwan, Hong Kong, Singapore and South Korea were already away from the import-substitution. These countries had been among the poorest in Asia and viewed as having the very gloomy growth prospects. But they have shown their phenomenal performance of economic growth.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main factors of these impressive perform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theoretical and empirical framework for illuminating recent experiences of these countries. We shows that these performances are based on the aquired comparative advantage by utilizing outward-looking strategies.

1. 서 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단히 빠른 경제성장은 지속해 왔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960에서 1990년까지 연 평균 8%이상의 성장율을 보여 왔고 일인당 GDP도 1990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1965년에 970\$에서 1990년에 5400\$이 되어 연평균 7.1%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 이외에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들국가는 1960년대에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 속해 있었고 그 당시의 이들 국가들의 미래의 경제적인 전망으로는 매우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이들국가의 생활수준은 거의 5배정도로 높아져 이제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생활수준을 갖게 되었다.¹⁾

*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1)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를 비롯하여 개도국의 GDP와 일인당 GDP에 관한 정리된 자료는 Krueger(1995)를 참조할 것.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는 수입대체지향적인 산업화전략을 추구해 왔으나 1960년대에는 수출지향적인 공업화전략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경제적인 배경으로는 이 당시 우리나라는 대단히 원자재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거의 GDP의 10%에 이르는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자금부족을 미국의 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외국원조의 감소에 대한 전망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의 변화 없이 경제성장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었던 1960년대의 상황은 수입대체적인 경제개발전략에서 수출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²⁾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의 지속적인 빠른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의 해외무역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의 수출지향적인 무역제도를 갖게 된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1960년대를 전후한 비슷한 시기에 외부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outward-looking economic strategy)을 채택했고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수출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고 수출에 대하여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해 왔다. 또한 환율도 수출에 도움을 준 반면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실효보호율로 억제되었다. 또한 수출보조금과 수출에 대한 조세혜택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수출에 유인이 제공되는 외국무역제도의 덕택으로 이들 국가들은 매우 빠른 수출과 수입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GDP의 성장보다 훨씬 빠른 성장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때 외부지향적인 무역전략이 수출의 빠른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빠른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관찰해 볼 때 이들 국가의 비교우위는 헉서-올린의 무역이론에 의하면 발생되기 어려운 비교우위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외부지향적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배경과 이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특히 정태적인 비교우위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동학적인 비교우위이론을 분석하고 이 이론의 정책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비교우위이론과 헉서-올린모형

인류는 각 개인이 혼자서 삶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구성하여 노동의 분업을 통하여 더 많은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실현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 고도의 분업을 통하여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³⁾ 이러한 각 개인의 일의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개인이 한가지 일에만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초과생산한 것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류문명의 발전의 기저에는 교환을 통한 상호이익의 추구라는 기본적인

2) 우리나라 이외의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외향적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배경은 Krueger(1995) pp.2514-5를 참조할 것.

3) 개인과 사회와의 경제적인 관계 및 노동의 분업이 생산력을 증대하고 인류의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Heilbroner(1993)을 참조할 것.

전제가 깔려있다. 각 개인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생산된 초과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각 개인의 후생이 증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개인간의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한 교환의 현상은 국가간에도 비슷하게 적용가능하다. 리카아도(D. Ricardo)가 1817년 비교우위의 원리를 제시한 것은 바로 국가간에 비교우위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유무역이야말로 각 국가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여 준다는 주장이었다.⁴⁾ 이러한 국가간에 적용되는 비교우위의 원리는 지난 180여년동안 확고하게 경제학자들의 신조가 되었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로 자리잡아 왔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발전하여 헉서-올린 모형으로서 무역이론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이론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논란이 적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경제학의 분야보다도 견고한 이론상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 즉 이러한 비교우위는 각 국가의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부존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각 국가는 자기나라에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특화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써 더 높은 후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위치를 가졌던 헉서-올린 모형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이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는 무역모형들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다.⁶⁾

특히 최근의 동아시아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얻게된 비교우위를 기존의 정태적인 헉서-올린의 무역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이들 국가의 초기 부존자원에 기초하여 비교우위가 결정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자본집약적인 재화나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헉서-올린 모형은 정태적인 이론으로서 동태적인 비교우위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헉서-올린모형과 새로운 무역이론의 전개

이러한 헉서-올린이론에 대한 도전은 이 이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의 비현실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헉서-올린모형의 기본가정으로는 이국-이재-이요소, 완전고용, 무역의 균형, 생산요소의 동질성, 국내산업부문간 비용없는 생산요소이동과 국가간의 이동불가능성, 양국간의 기술의 동일성, 체증하는 기회비용, 생산요소 부존의 상이성과 고정성, 완전경쟁, 양국간 기호의 동일, 수송비의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⁷⁾. 이러한 가정들의 현실반영의 정

4) 리카아도의 무역모형에 관해서는 Appleyard와 Field(1995), Salvatore(1995), Kenen(1989) 등을 참조할 것.

5) Kierzkowski(1996)은 이와 같은 무역이론의 학자들간의 의견일치현상을 지난 수십년동안 무역이론은 행복한 상태(blissful state)를 지내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 Krugman(1990)에서 이러한 비교우위이론이 불완전하기는 하더라도 이 이론에 기초한 자유무역은 올바른 정책이며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무역이론가들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한물 간것인가?(Is free trade passe?)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yson(1995)에서 경제이론가들의 자유무역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관리무역(managed trade)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7) 이러한 헉서-올린모형의 엄격한 가정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Schott(1990), Kierzkowski(1996)을 참

도는 바로 이 이론의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 이론은 문제점을 갖게 되고 그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 이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안겨 줄 수도 있다.⁸⁾

우선 중요한 문제점과 이에 기초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자.⁹⁾

첫째, 생산요소의 국내 산업부문간의 이동이 비용이 전혀 없이 가능하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단기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이 똑같이 전혀 비용이 없이 이동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즉 단기에 있어서는 자본의 이동이 노동의 이동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무역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모형이 바로 특수요소모형이다. 즉 장기나 단기 모두에서 노동의 이동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나 자본의 경우에는 단기에 이동이 불가능한 특수요소(specific factor)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Jones(1971), Mayer(1974), Mussa(1974), Neary(1978) 등이 있다. 이 모형은 2재화, 3요소모형으로 헥셔-올린모형과는 다른 의미를 제시한다. 이 중 중요한 것으로는 기존의 스톨퍼-사뮤엘슨정리와는 다른 결과를 얻는다. 즉 스톨퍼-사뮤엘슨 정리에 의하면 어떤 산업을 관세로서 보호할 때에는 희소한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풍부한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 특수요소모형에서는 보호받은 산업의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보호받은 산업과 보호받지 않은 산업 모두에서 똑같이 오르나 보호받은 산업의 가격상승보다는 적게 오르며, 보호받은 산업의 생산과 고용은 증가하나 보호받지 않은 산업의 생산과 고용은 줄고 보호받은 산업의 자본 임대료는 오르고 보호받지 않은 산업의 자본 임대료는 떨어진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명목임금이나 명목 임대료의 측면에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는 상승하게 되므로 노동자나 자본가 모두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헥셔-올린-사뮤엘슨모형과 특수요소모형은 모순된다고 보지는 않고 전자는 장기에 적용되고 후자는 단기에 적용되는 모형으로 간주함으로써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헥셔-올린에서는 각 국가가 양재화를 생산하며 어떤 특정재화를 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2재화모형의 경우에는 두재화를 모두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Jones(1974)에 따르면 각 국가는 그나라의 요소부존에 가까운 재화를 특화 생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소부존이 변화함에 따라 이 부존에 상응하는 재화에 특화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소국의 경우에는 다재화 생산모형에서 전재화의 일정 부분집합(subset)의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Krueger(1977)도 요소부존 순위가 중간인 국가는 중간요소집약도의 재화를 생산하고 노동풍부국으로부터는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하고 자본풍부국으로부터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개도국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특히 이 개도국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조할 것.

8) Scott(1990)은 헥셔-올린모형의 두가지의 가정은 단순화한 가정이라기 보다는 왜곡시키는 가정이라고 보았다. 이 가정 중의 하나는 "증가하는 비용의 법칙(the laws of increasing costs)"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적인 자원은 만들어진다기 보다는 지역적으로 발견된다는 것(productive resources are found locally rather than created)"이다.

9) 이 절의 내용은 Kierzkowski(1996)에 기초하여 정리된 것이다.

있다.

셋째, 기존의 무역이론은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은 세계는 원자적인 소국들로 구성된 완전경쟁의 세계라기 보다는 독점력(monopoly power)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비경쟁성에 기초한 무역이론이 많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Grubel과 Lloyd(1975)의 연구에 의하면 유사한 요소부존을 가진 국가들과 선진국들 사이에서 국제무역의 상당부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무역은 산업간 무역(inter-trade)이 아니라 산업내 무역(intra-trade)인 것이다. 이러한 무역의 부분은 헤셔-올린의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비경쟁적인 시장구조하에서의 무역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형으로서는 일재화모형(trade model in one good)에 대한 연구로 Brander(1981), Brander와 Spencer(1984), Brander와 Krugman(1983)을 들 수 있고 이 모형에서 주는 의미는 과점시장에서의 생산자는 상대국시장에 침투하고자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함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양국의 소비자가 이익을 얻게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이론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자유무역정책보다 더 낫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으로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이 있어온 연구이다.¹¹⁾

이러한 이론 이외에도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수요특성에 기초한 무역이론을 제시한 연구로는 Lancaster(1979,1980), Helpman(1981)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각국은 차별화된 동종의 재화를 교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내무역과 산업간무역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의 연구로는 Krugman(1979,1981,1982)와 Dixit와 Norman(1980)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각 개인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화된 상품을 소비하려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무역의 도입으로 통합된 시장에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고 이 무역으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의 적용으로 더 낮은 가격에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4. 경제정책에 기초한 비교우위의 동학이론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무역이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앞에 언급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에 이룩한 빠른 경제성장은 설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무역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고,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특히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빈부의 차가 더욱 커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개발상태에 있던 이들 국가들이 짧은 기간에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저개발국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부익부 빈익빈구조를

10) Vona(1990)의 연구에 의하면 선진 10개국의 OECD국가와의 제조업무역의 49%가 산업내무역의 비중이었으나 1980년에는 55.5%, 1987년에는 57.8%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이 이론의 개괄적인 설명은 Krugman과 Obstfeld(1991) pp.267-72를 참조하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가 외부지향적이고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정책기회의 채택이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²⁾ 따라서 요소부존이 아무리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는가에 따라 기회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정태적인 요소부존과 체증하는 비용의 가정 대신에 요소이동, 규모의 경제와 학습곡선에 기초한 체감하는 장기비용의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리카아도가 제시했던 포도주를 특화하는 국가와 섬유를 특화하는 국가의 장기와 단기의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전망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단기에 있어서 어떤 국가가 포도주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에서는 섬유산업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섬유산업은 포도주 산업보다 고급기술의 산업이고 그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에 포도주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가 헤셔-올린이론이 제시하는 대로 따른다면 단기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태적인 비교우위이론에 따르면 높은 성장과 높은 부가가치를 누리는 국가는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고 이러한 자연적인 비교우위를 추구하면 저수준의 국가는 계속 경제개발의 저수준에 머물게 되고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태적인 비교우위이론에 기초한 자유무역이론은 부유한 국가와 강한국가에 유리한 이론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선진국들은 저개발국의 신참자들(newcomers)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고 그들의 우월한 위치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자유무역을 주장한 국가는 그 시대의 강한 국가였다. 자유무역은 자유경쟁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의 국제경제체제를 통하여 강한 국가들의 힘을 더욱 키워서 약한 국가가 더욱 따라오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태적인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도전은 낮은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이들은 선진국들에 대해 자국이 2 등의 시민국가라는 점을 용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상당부분 정치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

오늘날 높은 기술변화와 빠른 경제성장의 시기에 저개발국의 합리적인 선택은 성장산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진입과 성공적인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저개발국은 가능한 한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유망한 산업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태적인 헤셔-올린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산업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산업의 재화는 항상 수입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비교우위는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잘못된 것이며 오늘날 일본을 비롯한 많은

12) Scott(1990) pp.80-85 참조.

13)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Krueger(1995) pp.2450-1을 참조할 것.

동아시아국가들이 국가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새로운 비교우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는 유망한 산업분야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유망하지 않는 분야는 억제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동학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통하여 덜 유망한 산업에서 유망한 산업으로의 자원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은 기존의 유치산업보호론과 유사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특정산업부문을 집중육성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점은 최근의 비교우위의 획득에 관한 주장은 수입대체적인 공업화보다는 수출지향적인 공업화를 추구하고 있고, 산업의 보호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해외에 대한 통제보다는 국내적인 통제를 성취하고 있다는 점, 시간에 따라 산업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유치산업보호론은 전통적으로 어떤 특정산업이 선진국의 산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동아시아국가들의 현상은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동아시아적인 산업보호정책은 기존의 국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본전제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보호는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적인 노동의 분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산업보호는 모든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목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율을 낮게 유지해왔고 어쩔수 없는 상황 즉 시장의 균형환율과 큰 차이가 발생할 때만 환율을 상승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환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환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구매력을 높이면서 이를 통하여 외국의 부품을 싸게 구입했고 수출가격은 비싸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은 정부의 경제발전에서의 적정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의 경험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외부지향적인 무역전략이 빠른 경제성장의 중요요인이라는 점을 확신시켰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는 경험적인 사실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성공을 시장에 의존하는 정부정책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는 수출을 촉진하고자하는 정부의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첫째 정부만이 맡아야할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법과 제도,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과 정부가 민간의 생산자들에게 유인을 보장해주는 일과는 서로 상쇄적인 관계(tradeoffs)가 존재한다. 이에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일로서는 공중건강서비스 및 교육의 공급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인 하부구조 즉 도로, 항만, 철도, 교량, 통신 등의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에는 실패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¹⁴⁾

셋째, 동아시아국가에서는 수출성과가 어느정도나 가격신호의 시장반응에 따른 것이었는가

14) Krueger(1995) p.2541을 참조할 것.

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국가의 정부개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신호에 대한 의존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동아시아국가의 수출성과는 어느정도나 정부관리들의 개입의 결과인가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는 시장력에 잘 반응하였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관리가 산업과 수출의 선택을 지도해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특정산업에의 자원배분에 어느정도나 개입해야 하는가와 그 개입이 경제적인 성과에 어느정도나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이루어 질 것이다.

5.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기존의 무역이론에서 어떠한 변화를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헉서-올린이론에 기초한 무역이론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기존의 정태적인 비교우위이론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이익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또한 헉서-올린의 기본가정의 현실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태적인 이론에서처럼 자연적인 비교우위에 기초한 공업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고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산업보호정책이 기존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수출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통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품에서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분석해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늘날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에 기초한 외부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은 새로운 부문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더욱 그 적용가능성과 논리적인 타당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폐쇄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신호에 민활하게 대응하는 개방적인 수출지향적인 개발전략이어야만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유치산업보호에서 제시된 선별적인 특정부문의 산업보호라기 보다는 전면적인 산업보호를 통하여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호의 방식은 각 국가의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대응하여 이러한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정책은 가치판단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론의 실증가능성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론적인 틀에 보다 확고하게 기초한 이론의 제시보다

는 기술적인(descriptive) 설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과 현재 동아시아의 경험에 기초한 동학적인 비교우위 이론과의 관계설정의 문제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이론이 유사하지만 한 이론은 개도국에서 적용되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 이론의 통합적인 접근방법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¹⁵⁾

셋째,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국가의 외향적 경제개발전략에 기초한 동학적인 비교우위확보의 이론이 지속적으로 이들 국가에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선진공업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속될 것이고 특히 많은 저개발국이 아직도 기본적인 생계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도 기회획득을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많은 건설적인 현실에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Appleyard D.R. and A.F. Field(1995), *International Economics*. The United States:Richard D. Irwin, Inc.
- Brander,J.(1981), 'Intra-industry in identical commod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1,1-14.
- Brander, J. and P.R. Krugman(1983), 'A riciprocal dumping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Brander,J. and B. Spencer(1984), 'Tariff protection and imperfect competition' in H. Kierzkowski, ed., *Mom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Oxford Univ. Press.313-321.
- Brown W.B. and J.S. Hogendorn(1994), *International Economics*. The United State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Dixit, a. and V. Norman(1980),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rubel, H. and P. Lloyd (1975),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Macmillan,Inc.
- Heilbroner,R.(1993), *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Jones, R.W.(1971), "A three-factor model in theory,trade and history, in J. Bhagwati et al., eds.,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Amsterdam: North-Holland.
- Kenen,P.B.(1989), *International Economics*. The United States: Prentice-Hall, Inc.
- Kierzkowski, H.(1996), 'Recent advances in international trade theory: a selective survey', in T. Jenkenson,eds., *Readings in micro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5)전략적인 무역정책에 대하여는 Brown과 Hogendorn(1994) 8장 pp.267-313을 참조하라.

- Krueger, A.O.(1995), 'Policy lessons from development experience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J. Behrman and T. N. Srinivasan, eds., *Handbooks of development economics*. Netherlands:Elsevier.
- Krugman, P.R.(1979), 'A model of innovation,technology transfer and the world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Vol.87,253-266.
- Krugman, P.R.(1984), 'Import protection as export promotion: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presence of oligopoly and economies of scale', in H. Kierzkowski,ed.,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Oxford Univ. Press.
- Krugman, P.R.(1986), 'Introduction:new thinking about trade policy', in P. Krugman, ed., *Strategic trade policy and new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IT Press.
- Krugman, P.R.(1990), 'Is free trade Passe' in P. King, eds.,*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United States: McGraw-Hill,Inc.
- Krugman, P.R. and M. Obstfeld(1991), *International Economics*. The United States: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 Lancaster, K.(1979), *Variety, equity and efficiency*. Oxford: Blackwell.
- Lancaster, K.(1980), 'Intra-industry trade under monopolistic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0, 151-175.
- Mayer, W.(1974), 'Short-run and long-run equilibrium for a small open 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2, 955-967.
- Mussa, M.(1974), 'Tariffs and distribution of income:the importance of factor specificity:substitutability, and intensity in the short and long ru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1191-1204.
- Neary, J.P.(1978)'Short-run capital specificity and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Journal*, Vol.88, 488-510.
- Salvatore, D.(1995), *International economic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Scott,B.(1990), 'Creating comparative advantage', in P. King, eds.,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United States: McGraw- Hill, Inc.
- Vona, S.(1990), 'Intra-industry trade: a statistical artefact or a real phenomina?' *Banca Naz. Lavoro Quart. Rev.*, Dec. 1990, p. 400.